

제3회 인천음식제과제빵축제

주최 : 인천광역시 주최, 인천광역시농업기술원()인천지회



인천 시민과 하나된 즐거운 먹거리 축제

제3회 인천음식축제

제3회를 맞는 인천음식축제에 올해 처음으로 제과제빵 전시관이 들어섰다. 인천광역시지회가 추진해 선보인 이번 제과제빵 전시관에는 다양한 행사가 열려 무더위와 함께 비까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인천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경인 제과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인천음식축제 제과제빵 전시관'을 둘러본다. 글·김영주 | 사진·전문식

지난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제3회 인천음식축제가 열렸다. 인천음식축제는 인천의 대표 음식을 소개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해 인천 시민이 하나 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무장한 제과제빵 전시관이 새롭게 선보여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인천광역시지회가 인천 지역 제과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기 위해 마련한 제과제빵 전시관에서는 케이크·쿠키 만들기, 각종 공예작품 전시, 샌드위치 시연 및 시식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인천 시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인천 지역 10여 업소에서 만든 150여 개 케이크와 18개 공예작품이 전시되었고 인천지회지부 임원진들이 모두 나와 각종 시식 행사와 각종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위해 인천기계와 청우농동쇼케이스에서 기계 일체를 지원하고 인천재료연합모임에서 재료를 협찬했다. 또한 서울유유와 경인제과화학원이 참여해 우유 시음 행사와 케이크 만들기 등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의 운영위원장을 맡은 인천지회 정준기 서구지부장은 "이번 행사가 각 지부가 하나로 결속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인 지역 제과제빵 업계의 괄목할 만한 행사로 치루어져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㉞



1. 이번 행사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유현식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등 내외빈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며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2. 4일 내내 많은 인천 시민들이 찾아 행사를 즐겼다.

세계 빵 전시회



세계 각국의 빵을 보러 오세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제과 중추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지역 빵들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인천 지역 제과제빵 제품이 한곳에

인천 지역 유명 제과점 10여 곳이 참여해 선보인 150여 종류의 양과자 제품은 실용성 뿐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맛있는 빵도 먹고 볼우 이웃도 도우세요

인천시지회에서는 무료 시식회를 열어 시민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물론 빵과 샌드위치 등을 판매해서 볼우이웃들에도 참여했다.



무료시식 및 제과 제빵 판매

판매기금은 볼우이웃을 도와드립니다.



베이커리의 꽃, 공예 작품 구경하세요

인천 지역 유명 기술인들이 마음껏 기술력을 뽐낸 공예 작품 앞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떠나지 않았다. 빵공예, 설탕공예, 초콜릿 공예 등 베이커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예작품들이 모두 총집합했다. 특히 중국에서 온 설탕공예 전문가가 즉석에서 펼치는 시연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엄마와 함께 케이크 만들어볼까요

엄마, 아빠, 선생님과 함께 케이크와 쿠키, 빵을 만들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4일 내내 열려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간단 홈베이킹 클래스가 문을 열었다. 샌드위치나 머핀 케이크 등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여 주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